꿈은 나누면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삶과 사역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보여준다. 따라서 한 조직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의 희망과 꿈이 반영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지도자는 거의 없고, 비전이 없는 조직 역시 거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비전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더십 분야의 작가이자 교육자로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켄 블랜차드에 따르면, 자신과 함께 일한 수많은 조직 중에서 뚜렷한 목적이나 경영철학,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10퍼센트가 채 못 되었다고 한다. 이는 교회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분명 비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비전에 따라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도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근두 목사

어떤 조직이든 그 역사가 깊어질수록 변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인데, 울산교회는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울산교회가 비전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교회(담임: 정근두 목사)는 지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역사와 전통의 깊이만큼이나 내면의 깊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조직이든 그 역사가 깊어질수록 변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인데, 울산교회는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울산교회가 비전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비전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울산교회의 제자훈련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전으로 교회를 움직이고자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과 비전을 어떻게 나누며, 이를 통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새로운 도전, 그 출발선에서

정근두 목사가 울산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것은 95년 말이었다. 당시 울산교회는 4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교회로서, 그 역사의 깊이만큼이나 교단이나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교회였다. 특히 전임목회자인 박두욱 목사는 30년 이상 울산교회를 담임하면서, 주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목회자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때문에 후임자 선정이 쉽지 않았다. 전임목회자가 목회를 잘했다는 사실이 후임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 목사 이전에 3명의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아무리 목회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울산교회 역시 담임목회자와 함께 늙어갈 수밖에 없었고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빨리 후임자를 선정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만 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후임자도 선정하지 못한 채 박 목사의 은퇴가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정 목사 역시 청빙에 대한 수락이 쉽지 않았다. 물론 정 목사 자신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임을 느끼고 있었고, 전임목회자인 박 목사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이 선뜻 내려지지 않았다. 86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정 목사는 10년간 교회를 두 번이나 개척하여 소신 있게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 열매 또한 적지 않았다. 게다가 교계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한창 커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 목사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남들이 다 안 간다고 너마저 안 가겠느냐"라는 강한 부르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울산교회가 갖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울산교회를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정 목사는 청빙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96년 첫 주일부터 울산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정 목사가 꿈꾸던 변화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조차 쉽지 않았고, 곳곳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적잖은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비전공유의 법칙 1 부딪힘조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울산교회에 부임한 후 3년 만에 정 목사는 평생 잊지 못할 만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날 장로들이 식사를 하자고 그를 초대하였다. 정 목사는 으레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평소와 같이 편한 심정으로 초대에 응하게 됐다. 그런데 그날의 식사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왠지 모를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식사를 마친 후 장로님들은 A4용지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많은 목회자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이유는
변화의 속도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행동은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방향을 정할 뿐 아니라,
양떼들이 그 변화에 따라올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양떼들의 보폭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4~5장 분량의 건의서를 정 목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방식으로 설교해 주고, 이전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목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건의서의 내용 중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것은 설교에 대한 것이었다. 정 목사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유학까지 가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온 그에게, 게다가 한국 교회는 자신에게 설교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자신에게 본문은 어떻게 정하고 설교는 이렇게 구성하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건의서는 시작에 불과했다. 건의서 제출 후, 장로들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정 목사의 설교와 목회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지금은 지난 이야기라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건의서는 서론이었고, 20명이나 되는 장로님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목사님은 이런 점이 잘못되었고, 이런 면은 고쳐야만 한다' 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50년을 살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경험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조차 못한 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정 목사와 같은 경험은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날 정 목사가 지새워야 했던 불면의 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을 것이다. 정 목사에게는 그날 밤이 자신의 이후 목회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이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비록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장로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개척한 경험이나 당시 자신이 다져온 명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날 밤 저는 그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목회 여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으레 새로운 친구가 이사를 오면, 또래 친구들 중 한 명과 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남자아이들끼리 서열을 정하는 것인데, 비록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장로님들과의 이러한 부딪힘 역시 궁극적으로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자 당시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정 목사는 말한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는 크고 작은 부딪힘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딪힘에 목회자가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목회자와 성도, 교회 전체에 상처만 줄 뿐이며, 그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부딪힘조차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에만 부딪힘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정 목사는 건강한 자아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없다면, 결국 부딪힘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여유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비록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던 밤이었지만, 그 밤을 통해 정 목사는 장로들에 대해 그리고 울산교회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울산이 100만여 명이 모이는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농촌 사회의 정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여전히 태화강에서 고기 잡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반경이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귀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텃세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장로님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유의 법칙 2

방향은 정하되, 보폭은 양떼에 맞춰라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만 같았다.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장로들이 모여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것이었다. 말이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이지, 모임의 성격은 정 목사의 후임자를 물색하기 위한 기도 모임에 가까웠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수집사들까지 참여하며 모임의 규모가 커져만 갔다.

정 목사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양떼가 아닌가? 목자가 양떼와 싸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정 목사는 목회자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자신이 목자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모임을 확장해 가고자 할 때, 장로 중 한 명이 "정 목사 다음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당시 울산교회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정 목사를 모셨던 것이 사실이었고,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 목사와 같은 사람마저 못 버티고 나간다면 더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고, 모임을 주도했던 장로들이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돼 더 이상 분위기를 확대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모임을 주도했던 장로들 중 한 명이 정 목사와 함께 교단 내 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교단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 목사와 친해지게 되었고, 정 목사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정 목사에 대한 오해도 하나둘씩 풀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결국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 목사는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자신이 시도했던 여러 시행착오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정 목사가 범한 가장 큰 시행착오 중 하나는 속도의 문제였다. 변화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속도가 더디고,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 목사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현실로 부딪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정 목사의 설명이다.

"막상 현실로 부딪히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주일 점심에 성도들끼리 모여 식사하다가 누군가 '어떤 안건에 대해 이렇게 하자' 고 제안하면 언제든지 180도 방향을 선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전도회 회장들과 상견례를 하고픈 생각에 한 번 모이자고 했는데, 40~50명이나 모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제가 가진 생각이나 목회 비전을 나누기는커녕, 사람 이름조차 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몸은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 많은 목회자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이유는 변화의 속도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행동은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

록 속도를 양떼들의 보폭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지만, 그 속도는 철저히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전공유의 법칙 3 비전의 토대는 사람이다

정 목사가 부딪힌 또 다른 문제는 훈련체계의 혼재였다. 울산교회는 정 목사가 부임하기 4년 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비록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전임목회자인 박 목사가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관계없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자가 새로운 목회철학과 방법론으로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결과 울산교회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지만, 제자훈련이 교회 내 다른 양육프로그램들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다.

정 목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제자훈련을 새롭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필요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렵게 시작한 제자훈련을 멈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기존에 존속해 오던 프로그램 하나를,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 작업과 결단이 요구된다. 게다가 관계된 성도들의 아쉬움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목회자의 적잖은 배려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회 내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는 있었지만, 제자훈련을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자훈련을 다시 안 할 생각이라면, 그나마 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임을 확신하는 정 목사로서는 다시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정 목사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사람에게 그 열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저희 교회의 경우, 그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리해서 모든 반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는 기존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담임목회자가 젊고 새로운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교역자 중에서 가능성 있는 부교역자들만 제자훈련을 담당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양육프로그램들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정석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훈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제가 얻은 결론이 바로 역시 훈련은 사람이, 인도자가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다. 특히 전통이 있고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이전까지 자신이 가던 방향과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관성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역사가 오래 되면 될수록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성이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에게도 있다. 목회자 역시 이전까지 자신이 목회하던 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상충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성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속도의 문제에서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서 에서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자식들이 유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짐승과 자식의 행보에 따라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저는 야곱이 잔꾀를 부린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분명 방향은 지도자가 정해야겠지만, 그 보폭은 철저히 양떼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방향을 정할 뿐 아니라, 양떼들이 그 변화에 따라올 수 있도

사실 울산교회는 전임목회자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교회 규모상 어쩔 수 없이 부교역자들이 훈련을 담당했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다른 사역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훈련에 전념하지 않았다.
결국 정 목사가 제자훈련 담당자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은 당시 울산교회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되었다.
또한 이미 제자훈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비전공유반'을 개설해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사실 울산교회는 전임목회자인 박 목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교회 규모상 어쩔 수 없이 부교역자들이 훈련을 담당했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다른 사역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훈련에 전념하지 않았다.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없이 실시하니, 그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소그룹으로 모였지만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마치곤 했다. 결국 정 목사가 제자훈련 담당자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은 당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정비된 훈련과정은 교회 내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다. 비록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들을 훈련과정 전체를 다시 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최소한 사역훈련만이라도 받게 하여,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소명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성도들을 납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교회의 존재 이유나 비전에 대한 공유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고민 끝에 정 목사가 취한 방법은 비전공유반의 신설이었다. 비전공유반은 『새들백교회 이야기』와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진도에 따라 함께 읽고 소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비전공유반을 위한 소그룹 교재도 별도로 제작한 정 목사는 부교역자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나눈 후, 그 내용을 가지고 부교역자들이 이미 훈련받은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나누게 하였다. 물론 장로와 같은 교회 내 핵심지도자반은 정 목사가 직접 담당했다.

다행히 비전공유반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고, 그 열매도 컸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의 철학으로 묶어,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했다. 결국 울산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역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이 비전공유반까지 거치게 되었고, 울산교회의 독특한 훈련과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정 목사는 새로운 부교역자들이 부임하면 반드시 이들과도 비전공유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목회철학과 비전을 부교역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건강한 동역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더라도 진정한 열매를 맛보기 힘들 것이라고 정 목사는 강조한다.

최근에는 주변 목회자들의 부탁으로, 울산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도 함께 비전공유반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학에 대한 강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리차드 벡스터가 쓴 『참 목자상』이라는 책 한 권을 읽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역시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목회자의 심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었지,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나 『새들백교회 이야기』와 같은 책이, 그리고 'CAL세미나'가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힘들긴 하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비전공유반을 통해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목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정 목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을 하나둘씩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래서 지역 목회자들을 돕는 일과 더불어, 최근 5년 사이에 3번이나 교회개척을 하게 된다. 그것도 교회부지 구입과 건축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파송하여 개척한 교회를 돕도록 하였다.

누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 목사는 울산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열매를 울산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교회들을 도와야 하는데, 울산교회와 자신이 줄 수 있는 무엇보다 큰 도움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도록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만이 변화와 비전성취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비전공유의 법칙 4 꿈을 나누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훈련체계를 재정비하고 훈련된 성도들과 비전을 나누게 되자, 울산교회는 지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꾸준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로, 비전이 움직이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던 울산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해마다 장년출석 인원이 100여 명씩 증가하는 양적인 성장도 맛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장은 그 내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울산교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교인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교인감소 추세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특성상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게다가 울산교회의 새가족 중 75%가 새신자로, 이들이 출석교인화 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매년 100여 명이라는 성장추세는 결코 적지 않은 열매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정 목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을 하나둘씩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래서 지역 목회자들을 돕는 일과 더불어, 최근 5년 사이에 3번이나 교회개척을 하게 된다. 그것도 교회부지 구입과 건축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파송하여 개척한 교회를 돕도록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건물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개척교회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 목사는 교회의 핵심은 결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건물을 지어주는 선에서 멈추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울산교회와 같이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정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대를 이어 섬겨오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울산교회와 같이 큰 규모의 교회에 익숙한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현재의 교회 모습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하지만 정 목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훈련 받은 교회의 일꾼이 나가서 섬기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3년 전 제3울산교회를 개척할 때, 한 권사 가정이 파송교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게 된다. 정 목사의 이러한 마음을 읽은 것이다. 결국 그 권사 가정은 2년 4개월간 제3울산교회를 섬기다가 최근 다시 울산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물론 제3울산교회에서 그 권사 가정이 갖는 중요성은 컸고, 할 일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권사 가정은 돌아와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권사 가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울산교회 성도들에게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파송교인으로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일저녁 울산서교회 파송예배는 그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울산서교회는 15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교회로 담임목회자가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교인들은 12~13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였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는 교회인 것이다. 결국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은 정 목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을 모아 서교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부임할 것을 종용했지만, 아무도 자원자가 나서지 않게 된다.

"그 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제가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참으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동역했던 제가 아끼는 부교역자 한 명을 불러, '서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에 가시든지 아니면 억지로 가시든지. 목사님이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고, 결국 부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른 제 아내가 일주일 후에 제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교회 담임목사로서 당신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간절한 심정을 제 아내는 느끼고 한 주간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임할 목회자를 정한 후, 정 목사는 당시 담당하고 있던 비전공유반 식구들에게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서교회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며, 파송교인으로서 2년간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게 된다.

결국 주간반에서만 3가정이 헌신하였을 뿐, 분위기가 좋았던 저녁반에서는 오히려 한 가정도 헌신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졸업여행 때 정 목사는 밤 11시에 저녁반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서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게 되었고, 훈련생들끼리 남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훈련생들이 케이크 하나를 사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가 결혼 31주년인데, 이를 알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생 중 한 명이 '목사님, 케이크와 함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할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서교회에 가서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이들과 함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나누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훈련이 목회자 개인의 목회를 위한 그리고 하나의 지역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일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다. 2~3년 동안 공들여 훈련시킨 수료생들을 타 교회로 2년간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일꾼 한 명이 소중하지 않은 교회는 없다.

하지만 울산교회와 정 목사는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울산교회 훈련 과정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과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넘어 사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눌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며, 마음이 움직일 때 비전은 그만큼 이루어져 간다.

비전공유의 법칙 5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울산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달려온 시간도 올해로 10년이 넘고 있다. 그 역시 여러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동안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 왔고, 이제 그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늘 다짐하는 정 목사이지만, 도전의 출발선에 선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뭔가 보이는 것도 같고 변화도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2년, 3년 공들여 훈련시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목회자가 변화에 대해 포기하기 쉽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은 여전히 진행되고 겉으로 보기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목회자가 내면으로 변화를 포기하는 순간, 제자훈련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정 목사가 말하는 '과연 훈련을 통해 사람이 변할까?' 라는 고민은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게 된다. 물론 정 목사와 같이 10년 가까이 훈련을 인도해 온 목회자가 느끼는 고민은 분명 그 깊이가 다를 것이다. 어쩌면 훈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이런 의문은 더 깊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 목사가 얻은 결론은 결코 인도자가 변화에 대한 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확신을 포기하는 순간 제자훈련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화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정 목사는 목회자 자신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확신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저는 반신욕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반신욕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 외에 딱히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적인 욕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제일 먼저 찾게 되고, 점차 제 삶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훈련생이 아니라 인도자 자신이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만이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생이 아니라 훈련을 인도하는 인도자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훈련을 통한 변화의 확신은 인도자 자신이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자 몸부림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사실 훈련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인도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거나 점검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도자 자신이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도자가 훈련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서, 훈련생들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 없다. 또한, 인도자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때, 변화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변화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훈련 역시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도자는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변화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굳건히 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울산교회가 어떻게 비전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눈물과 헌신으로 자란다는 것이다. 어쩌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지도자가 흘려야 할 눈물과 헌신은 더 굵고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울산교회 제자훈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흘린 눈물만큼 거두는 열매도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 더 굵고 많은 땀방울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양승언 목사〉